

소요되었다. 이는 파종시기가 늦을수록 출현기와 수확기가 길어진다는 Kim(1983), Lim *et al.*(1987), Ra *et al.*(1987) 및 Cho and Lee(1973)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.

생태형 및 파종시기에 따른 출현율 및 월동율은 Table 19와 같다. 생태형별로 출현율은 한지형(단양종)이 89%로 가장 높았고, 중간형(DL01)과 난지형(대서종)이 각각 67%와 63%로 낮았는데, 한지형(단양종)이 중간형(DL01)과 난지형(대서종)에 비하여 종구 저장성이 좋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. 파종시기 별로는 파종시기가 늦을수록 출현율이 낮아져 10월 26일의 추파가 81%로 높았는데, Ra *et al.*(1987)의 결과와 유사하였다. 월동 전 출현된 중간형(DL01)의 월동율은 72%였고, 난지형(대서종)은 82%로 낮아 중간형(DL01)과 난지형(대서종)의 동해피해가 높았다.

Table 19. Effects of ecotypes and planting dates on the emergence and over wintering rate in the cultivation of garlic.

Ecotype (Variety)	Planting date	Emergence rate(%)	Over wintering rate (%)
Cold type (Danyang -jong)	Feb. 23	90	—
	Mar. 16	88	—
	Apr. 5	84	—
	Oct. 26	93	—
	Mean	89 a	— c
Inter.-type (DL01)	Feb. 23	69	—
	Mar. 16	64	—
	Apr. 5	61	—
	Oct. 26	72	72
	Mean	67 b	72 b
Warm type (Daeseo -jong)	Feb. 23	62	—
	Mar. 16	58	—
	Apr. 5	53	—
	Oct. 26	78	82
	Mean	63 b	82 a
Planting date mean	Feb. 23	73 ab	—
	Mar. 16	70 b	—
	Apr. 5	66 b	—
	Oct. 26	81 a	76.8
E ^{a)}			
P ^{b)}			
E×P			

^{a)}Ecotype(Variety), ^{b)}Planting date

Same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$\alpha=0.05$ by DMRT(*, $p<0.05$; **, $p<0.01$; ns, non-significant)

생태형별 추대율은 한지형(단양종)이 0~68%로 가장 높았고, 중간형(DL01)과 난지형(대서종)